

2020 새 설계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경제 회복·미래 신산업 구축 모든 행정력 집중”



“올해 군산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미래 신산업 구축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몸에 밴 과거의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경사이신(敬事以信·일을 삼가고 믿음직하다)의 자세로 시장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어려움 속에서도 늘 희망을 찾으려 노력했고, 그 결과 친환경 미래자동차와 재생에너지 중심도시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리고 있다”며 “새해에는 역점 사업인 군산 상생형 일자리는 물론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 신산업 육성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선정과 친환경 자동차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고, 관련 기업의 투자도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등 미래 신산업 관련 신규 예산을 포함해 역대 최고인 1조536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해 지역경제

친환경자동차·에너지산업 특구 지정

역대 최대 1조536억원 투입 체질 개선

소상공인·청년창업 활동 체계적 지원

체질 개선을 위한 실행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 기대했다.

강 시장은 “시민이 주축이 되는 출자기관 설립과 발전사 선정 등이 마무리되면 에너지 자립도시를 향한 첫 걸음인 새만금 육상 및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햇빛과 바람, 물 등 군산 시민 모두의 공공자원인 자연을 이용해 시민에게 새로운 소득과 사회적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역 소득과 자본의 외부유출을 막고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도입된 군산사랑 상품권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모바일 상품권과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상권활성화재단, 구도심 상권 르네상스사업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청년들이 지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창업지원에도 힘써 지역 경제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때로는 넘어지고,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시민의 행복과 군산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큰 성(城)을 이루듯 지지와 성원이 희망찬 군산을 만들어가는 길에 단단한 밑거름이 될 것이고, 공직자 모두는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뛰고 또 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이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믿고 기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1500여 공직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시간 겪었던

2020년 주요 사업은

- ▲미래 신산업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및 지속 가능한 경제기반 마련
- ▲뿌리가 튼튼한 자립경제 확립 위해 소상공인, 청년 지원 강화
- ▲시민의 일상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누구나 보편적 혜택을 통해 삶의 여유와 행복이 넘치는 도시 조성
- ▲먹거리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농수산물 판로 개척 및 부가가치 창출
- ▲군산을 움직이는 원동력 ‘시민의 참여’ 확대

어려움이 시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더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올해도 선봉에 서서 위기와 역경을 시민과 함께 넘어 더욱더 굳건해지는 군산시를 건설하겠다”면서 변함없는 응원을 당부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정읍시,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 조성 ‘시동’

1만5868.9㎡ 규모 호텔 건립 (주)현대에너지와 업무협약

정읍시가 내장산의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정읍시에 따르면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인 (주)현대에너지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에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지 기반구축에 나선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처리와 행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업체는 관광호텔 건립에 나서게 되며 이미 한국관광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관광호텔 부지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내 5개 필지 1만

5868.9㎡(약 4800평)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약 860억원을 투자해 2015년 160만 5364㎡(48만여 평)의 부지조성을 완료했다.

이 중 공공부지를 제외한 111만7554㎡(33만평)의 부지를 민간에 분양해 건설·운영하게 된다.

민간 분양부지 중 현재 102만8189㎡(31만평)의 분양을 완료했으며 9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내장산 골프·리조트가 운영 중이며 전북은행연수원 부지도 지난해 12월 토지 분양계약을 완료해 2020년 상반기에 건축설계가 추진될 계획이다.



시는 대형부지에 대한 투자 촉진은 물론 소형 분양부지의 건축 조성사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전북은행연수원과 관광호텔이 전국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 기업과 협의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내장산리조트를 중심으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 황토로 만든 화장지 출시

쌍용C&B, 다양한 제품 생산 지역발전 기회로



고창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어 지역발전의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국내 최대 화장지 제조업체인 쌍용C&B가 ‘코디 고창황토 화장지’(사진)를 출시했다.

고창의 황토를 활용해 만들었다. 이 회사는 2008년부터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황토성분 화장지를 생산해 왔다.

이후 리뉴얼 작업을 거쳐 고창황토를 제품명 전면에 내세웠으며 제품 홍보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황토를 강조하면서 지역을 홍보하고 있다.

쌍용C&B마케팅 관계자는 “짧은 기간이

라 속단하긴 어렵지만, 고창황토를 전면에 내세운 이후 유통업체와 소비자들로부터 반응이 좋아졌다”며 “앞으로도 고창황토를 활용한 다양한 지역 연계 프로젝션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창의 황토는 281㎢으로 지역 전체면적 606.8㎢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타 지역 황토에 비해 철분 등 무기질 함량이 높고 병충해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게르마늄과 미네랄이 풍부해 과일의 당도를 높이고 동·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원적외선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익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1회당 50만원까지 지원 확대

익산시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 최초로 난임 부부 시술비도 정부기준 초과 가정에도 시술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법적 혼인상태, 사실 혼인상태 난임 부부 가

정도 연령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체외수정시술은 신선배아 1~4회는 최대 50만원, 5회~7회·여성연령이 만 45세 이상인 경우 최대 40만원이 지원된다.

인공수정 시술은 1회~3회는 최대 50만원, 4회~5회·여성연령이 만 45세 이상인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순창군, ‘청년·신증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순창군은 ‘2020년 청년·신증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과 신증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청년취업지원(만18~39세) 5명과 신증년 취업지원(만40~64세) 6명을 선발한다.

이들에게는 정규직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는 월 50만~65만원, 신증년을 고용한 기업에는 월 7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청년·신증년층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년간 최대 300만원(신증년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6일까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